

# '희망 피워내는 한국교회' 2025 대한민국성탄축제

## 20m 높이에 해당화 장식... 내년 1월 1일까지 불 밝혀

'2025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지난 11월 17일 CI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 주최로 열렸다. 높이 20m, 폭 6m 규모의 올해 트리는 '희망과 용기'의 꽃말을 지닌 해당화로 장식돼, 이따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피어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았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여의도침례교회, CIS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이 후원한 이번 점등식은 대형 성탄트리의 불을 밝혀 대한민국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는 전기철 목사와 배우 남보라의 사회로 현장에는 감경철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대통령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예장통합 권위영 부총회장, CIS 공동대표이사 이철 감독,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한민수 감독 등 정교계 및 시민 대표 20여 명이 참여해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올해 성탄트리는 높이 20m, 폭 6m 규모로 설치됐으며,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해당화를 모티브로 장식됐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 교회의 회복과 사회의 희망을 표현한 상징물로 하단에는 시민 체합 디스플레이가 마련돼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진행됐다. 트리는 2026년 1월 1일까지 불을 밝힌다.

점등식에 앞서 열린 기념음악회에는 멜로망스, 루시, 박현주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예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한편, 2025대한민국성탄축제는 12월 내내 정동길 일대에서 이어지며 버스킹 공연, 푸드트럭,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이 성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겨울 축제로 채워질 예정이다.

# 기하성·예장백석 교단 통합 논의 본격화

## 2만교회 소속 대형교단 탄생, 한국교회 전환점 될까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쪽과 백석교회 백석대학교 전경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장 정동균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김동기 목사가 선교·교육 분야 등 공동 사역을 위한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양 교단은 정체성을 유지한 채 실질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선교적 연합체' 구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 실무 국면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기하성은 지난 13일 통합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동균 총회장, 임진용·양승호 부총회장, 강인선 총무를 협심위원으로 선임했다.

예장 백석총회 역시 임원회의와 실무위, 임시총회 등 내부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석총회 측은 "신학적 검

토와 실무 협의가 곧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계에서는 양 교단의 결합이 현실화할 경우 약 2만 교회가 소속된 대형 교단이 탄생해, 한국교회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분열된 한국교회의 구조 재정비와 대사회적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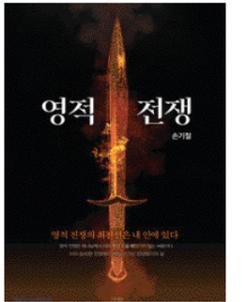
다만 두 교단은 역사·교단 정치 체계가 상이해 조직 구성 방식, 제도 운영, 사역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 '다음세대를 위한 연합', '선교적 공동 대응'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향후 논의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시간소개

## 영적 전쟁

이 책은 다른 영적 전쟁 서적들과 다르게 영적 전쟁을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누림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예방적 전쟁으로 정의한다. 즉,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잠된 정체성과 통치권을 사용하여 캠퍼빌라의 사명을 이루는 강력한 삶의 방식이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다. 진리는 단순하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영적 전쟁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분들에게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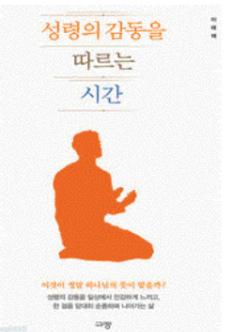
적 전쟁의 본질과 핵심을 깨달아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매일 이기는 삶,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단대히 행할 새로운 믿음의 큰 단력을 독자들에게 선사해줄 것이다.

저자/손기철 출판사/규장

##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한 책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그 감동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느끼고 따를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과 삶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걷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그 감동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전한다. 다만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또한 저자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히 증언한다. 현실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이말로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길임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실제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저자/이태재 출판사/규장

# 기감, 학원선교 비전 선포 "140년 기독교교육 계승"

## 선교 140주년 기념 '학원선교 콘퍼런스'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가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기독교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7일 학원선교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기감계통 61개 학교의 이사장·총장·교장·교목·교사 대표, 학원선교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140년

동안 이어온 학원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 속 학원선교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열려 처음 열렸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정체성과 사명을 고취시켰다. 김 감독회장은 "우리나라 근대사는 기독교교육 없이 설

명할 수 없다"며 "어려운 시대지만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콘퍼런스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실제 사례를 통한 모델 제시와 향후 미래 방향성에 대한 학문적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독교교육의 정체성 회복'과 '다음세대를 위한 학원선교비전'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다.

선언문에는 ▲신앙의 유산 계승 ▲복음의 가치와 인격 교육 실천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애매의 말씀의 회복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육적 사명 등이 담겼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나눔 예배

## 추수감사절 맞아 밀알복지재단 인식개선 나서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우리동선교회(담임 김이람 목사)와 함께 지난 16일 장애 인식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추수감사절 나눔예배를 드렸다.

이날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인 콜라보이더가 재능기부로 출연해 합창과 퍼포먼스를 펼쳤다.

밀알복지재단 소속 발달장애인 헬리스트 차지우 군도 무대에 올랐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헬리스트 차지우 군은

'시편 23편',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찬양 연주를 통해 감사와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밀알복지재단은 크리스천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공연, 설교, 기부 캠페인을 결합해 성도들이 즐겁고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예배를 운영하고 있다.

나눔예배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밀알복지재단 캠페인사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02-6411-3553)

# 변함없는 후원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결신문 후원교회 (가나다 순)



손항모 목사  
강서교회



김만수 목사  
고천교회



박요섭 목사  
남부교회



김재구 목사  
남산교회



강명국 목사  
늬사라교회



민중기 목사  
담심리교회



이병현 목사  
등촌제일교회



양준기 목사  
분래동교회



위성섭 목사  
부평남부교회



성태동 목사  
비산동교회



조기현 목사  
세망교회



신용백 목사  
사렛가뽀나루교회



김성은 목사  
시흥중앙교회



임시영 목사  
신수동교회



고신원 목사  
신원동교회



송은현 목사  
안성중앙교회



강대일 목사  
안양교회



이광석 목사  
예수소망교회



노은식 목사  
주남앞에기일교회



박용철 목사  
참춘은교회



석진성 목사  
창신교회



장내성 목사  
초대교회



이대은 목사  
평화교회



김경일 목사  
한소망교회



박근주 장로  
장로후원회장



김경철 장로  
세망교회



김중현 장로  
참춘은교회



윤세곤 장로  
비산동교회